

박명림 교수의 “미국의 범위”에 대한 비판

김 정 배 *

우리사회에서 한미관계사는 역사라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특정 신념과 정서가 진실을 앞지르기 일쑤고 연구자들 일반이든 자신의 ‘지식’만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래서 객관적 연구 자체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관계를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박명림 교수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박 교수는 냉전시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다른 국가들 및 중화체제 속의 한국을 비교 준거로 설정하고, ‘미국의 범주’ - “미국이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의 상한과 하한” - 속에서 한미관계를 분석한다. 박 교수의 주장을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권위주의체제의 등장과 유지의 후원자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압박한 압력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좌파공산주의체제와 우파파시스트체제의 제도화는 거부했다. 이러한 ‘미국의 범위’는 1987년 이후 종식되었지만 지역의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

* 이 글은 신라대학교 김정배 교수가 『역사비평』 86(2009 봄)에 실린 박명림 교수의 글, “순응과 도전, 적응과 저항: ‘미국의 범위’와 한미관계 총설”(218-251 쪽)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글이다. - 편집자 주.

** 신라대

생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냉전시대 한미관계는 안정적인 상호신뢰와 가치에 바탕을 둔 동맹관계가 아니었으며, 한국은 미국에 대한 저항, 적응, 도전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승만은 반공에서 “유능한 지도자”였으며 박정희와 전두환은 경제발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의 대미 저항과 도전이 실종되면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미정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냉전시대 ‘미국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모두 실패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포함되었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좌우했다. 이제 냉전시대 ‘미국의 범위’는 종식되고 한미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의 거시적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도움 혹은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선택적 수용과 거부가 한미관계를 관통하였으며 그것이 한국의 발전을 담보하였고, 그리고 한미동맹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의 글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느낀 의문점을 다른 시각으로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 교수의 글에 대해 다만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박 교수의 ‘미국의 범위’ 개념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말 그대로 양국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배한 냉전시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미국과 한국의 위치와 역할은 당연히 달랐다. 그렇다고 미국이 모든 문제에서 일방 통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관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적 질서 내의 거의 모든 국가, 특히 냉전의 ‘전초기지’ 국가에는 모두 적용되었다. 그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미국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때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한미관계의 범위를 설정하려면 ‘한국의 범위’ 또한 설정해야 옳다. 한국도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수 없었듯이 미국 또한 한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밀고 당기는 외교 혹은 ‘위협’은 한국도 미국도 상대에게 구사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한국정부

만이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고 도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미국 행정부들의 정책은 세계적 국내적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미국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그 방식은 행정부마다 달랐다. 박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결국 “미국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지도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면도 있었지만 다른 면도 함께 보아야 한다. 미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받아들인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반공주의자이고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점에 있었다. 당시 미국에게 가장 위협스런 것은 ‘민족주의’였다. 미국에게 민족주의란 자립경제, 좌파 혹은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미국에게 매우 위협스런 민족주의적 현상이었고, 박정희의 쿠데타는 미국이 한숨을 돌리게 한 사건이었다. ‘1980년 봄’과 전두환 쿠데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980년 봄은 미국에게 정치적 불안정을 의미했으며, 전두환은 레이건 행정부의 반공 드라이브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한국 독재정부의 몰락 또한 미국의 정책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박정희 독재체제는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와 맞지 않았고, 전두환은 레이건 2기의 탈냉전 정책으로의 전환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미국의 의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게는 ‘한국의 범주’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박 교수의 ‘미국의 범주’는 한미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것 같지 않다.

둘째, 냉전시대 한국정부에 대한 박 교수의 평가는 균형감을 잃고 있다. 한국정부의 수립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역사적 상황과 성격에 대한 ‘낭만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듯이 한국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특히 미국 헤게모니체제에서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반공과 친미를 정부의 존재 근거인양 주장하는 것도 ‘비학문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은 비판의 대상조차 못된다. 그러나 미국적 세계질서 속의 한국 정부를 마치 상당히 자주적이었다는 듯이 ‘동맹 속의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

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것은 명백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한국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상대적 자주는커녕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미국에 순응한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도 박 교수는 한국정부가 전통적 역사 경험과 학습으로 인해 미국에게 순응과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역사적 경험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역사에서 사대주의는 엄연한 '전통'이다. 민족주의자는 사대를 하더라도 자주적 사대를 하지 순응적 사대를 하지 않는다. 순응적 사대를 하는 자는 역사에서 상대적 자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응을 교훈으로 배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박 교수의 주장은, 한국시민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를 불러와서 독재체제가 마치 상대적 자주를 한 것처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박 교수의 평가 또한 초점을 한참 벗어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 그러나 냉전시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마땅히 유엔군을 해체하고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의 문제였지 그들의 실제 이해는 달랐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안보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 미국의 위협을 빙자한 주민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고,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미군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일본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등장은 중국, 소련, 북한,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게도 위협일 수 있었다. 친일파만 빼고 말이다. 중국이 보기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일본의 재등장은 기존 동북아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의 철수는 일본을 제외한 주변 모든 국가가 원치

않는 일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미 ‘데탕트’ 때 이미 중국과 미국,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한미동맹과 미군문제는 박 교수의 ‘냉전적’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넷째, 박 교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 - “찾아보기 힘든 사례,” “유일한 사례,” “가장 알 맞는,” “훨씬 유능한,” “세계 최고 수준” - 을 너무 자주 쓰고 있다.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또한 “미국체제 밖에서는 성공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만남에 더할 수 없는 의미를 새겨 넣는다. 그리고 4.19혁명과 6월 항쟁에 대해서도 “최초로 성공한,” “커다란 세계사적 의미”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정부를 높이 평가하고 시민사회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언뜻 보면 박 교수가 균형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균형감이 아니라 그의 역사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박 교수의 논지와 근거 어디를 보아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 냉전체제와 미국해게모니, 그리고 한국의 독재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균형 잡힌 인식을 찾기 어렵다.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세계적’ 의미를 선언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글 전체에 흐르는 미국 제국과 한국 독재에 대한 박 교수의 ‘호의적’ 평가가 희석되지는 않는다. 물론 박 교수가 미국과 한국의 독재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좀 더 그럴싸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글이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한마디로 박명림 교수의 글은 객관적이지도 균형 잡힌 것도 아니며 오히려 모순투성이다. 그러나 결과야 어떻든 박 교수의 학문적 시도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